

美증원군 가치 250兆?

국방研 분석… 천용택 前장관은 “1300兆”

전시 작전통제권(작통권) 단독 행사 추진에 따른 미 증원군 문제와 정보감시 능력확보 문제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유사시 증원되는 미군 전력의 가치가 2500억달러라는 국방부 산하기관의 분석이 제시됐다. 또 미국이 지난해 고(高)고도 전략무인 정찰기인 ‘글로벌 호크(Global Hawk)’를 우리나라 상공에서 운용하는 계획을 우리 정부와 공식 협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군 증원전력 가치 250조원?, 1300조원?=한반도 유사시 증원되는 미군 전력의 가치는 2500억 달러(한화 약 2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분석한 것으로 24일 나타났다. 한반도 유사시 긴급 배치되는 미군 증원전력은 육·해·공·해병대 병력 69만여명과 합정 160여척, 항공기 2500여대 등이다. 국방연구원은 또 주한미군의 자산가치는 주요 장비 100억달러, 전시 필수장비 33억달러, 전시비축탄약(WRSA) 67억달러 등을 포함해 총 200억달

라라고 밝혔다.

이는 천용택(千容宅) 전 국방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1300조원에 달한다고 밝힌 것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는 미군 증원전력의 범위를 어디까지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군 관계자들은 밝혔다.

◆글로벌 호크 한반도 조기투입?= 정부 관계자는 이날 “지난해 9월 주한 미 공군이 한국 공역(空域) 실무위에서 글로벌 호크의 한반도 운용 계획을 밝히고 이의 동의를 요청해 왔으나 심의 대상이 아니어서 사안을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미국이 글로벌 호크를 대북(對北) 정찰을 등으로 한반도에 투입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돼 주목된다. 미국은 2007~2008년 이후부터 글로벌 호크를 한반도에 출동시켜 대북 정찰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미군이 우리 정부와 이 문제를 공식 협의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유용원 군사전문기자(블로그bemilchosun.com)
이진동기자(블로그jaydee.chosun.com)

위기의 汎여권 “盧대통령 빼고 헤쳐모여”

내년 大選 겨냥한 새판짜기 시동

여권이 내년 대선을 겨냥한 정치권 새판짜기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나섰다.

◆노 대통령 배제한 대통령 신당 추진

열린우리당 김원기 전 국회의장과 정대철 상임고문, 이부영 전 의장 등 여권의 원로중진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빼고,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고건 전 총리, 국민중심당 등이 문치는 대통령 신당 창당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대철 고문은 본지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대통령 신당을 만들면 대통령이 일부러 신당에 따라올 필요가 없고, 탈당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정 고문은 “대통합 신당에는 경제계 원로, 기업 CEO 등이 대거 참여해야 하며, 이들이 오면 정당의 모양새가 달라진다”고 했다.

정 고문은 “고 전 총리와 민주당, 김근태 의장과 정동영 전 의장 등에게도 이 같은 뜻을 전했고, 공감대를 이뤄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한길 “고건·정운찬 만나”

김한길 원내대표는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고건 전 총리, 정운찬 서울대 전 총장 등 여당의 영인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을 잇달아 만난 사실을 공개했다.

김 원내대표는 “고 전 총리는 지난 12

일 회동에서 우리당이 추진하는 중도개혁 세력 통합론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또 대선과 총선 주기를 일치시키는 최소한의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고 전 총리

김원기·정대철

“대통합 신당 추진 합의”

訪美 마친 고건

“중도통합론 본격 펼칠 것”

내달 귀국 정동영

1500知人에 “길 알려달라”

는 여당이 대선후보 선출 방식으로 추진 중인 ‘오픈프라이머리(완전 국민경선제)’에 대해 “진일보한 제도”라고 평가했다고 한다. 고 전 총리측은 “서로 안부를 확인하고 궁금한 사항을 확인하는 수준이었을 뿐”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이달 초 정 전 서울대 총장과 만났으며 서로 호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내년 大選겨냥… 與 중진들 새판짜기 시동



7월1일 청와대 뒷산 정자서 무슨 일이…

盧대통령·김원기·정대철·신상우·문희상 참석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7월 1일 여권의 원로중진 인사들을 청와대로 불러 만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선 내년 대선을 겨냥한 대통령 신당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후 정치권에선 이날 만찬을 놓고 무수한 소문이 나돌았다. 여당발(發) 새판짜기 논란의 출발점이었다는 말도 나왔다. 참석자들이 전하는 당시 만찬 상황이다.

이날 참석자는 열린우리당 김원기 전 국회의장, 정대철·신상우 상임고문, 문희상 전 의장 등 5명이었다. 주로 노 대통령과 가까운 원로 중진급 인사들이다. 국정 전반에 대해 하심 탄회하게 얘기해 보자고 마련한 자리였다고 한다.

노 대통령은 이날 갑자기 “청와대 뒷산에 내가 개발한 좋은 곳이 있는데 가보자”고 제안했다. 복악산 자락을 타고 10분여를 올라가자, 조그만 정자가 하나 나왔다. 노 대통령은 “내가 만든 정자”라고 소개했다. 여기서 포도주를 마시며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이다.

정 고문과 김 전 국회의장은 노 대통령에게 “정권 재창출을 위해선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고건 전 총리 등을 아우르는 대통령 신당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신당과 노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 정 고문은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도 원기 말에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밀려나는 식으로

탈당했다. 대통령 신당을 하면 대통령이 탈당할 필요가 없다. 대통령이 신당에 따라 들어오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나도 여당이 잘되게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잘못되면 다시 지역구도로 가는 것 아니냐. 다시 과거 신라·백제 시대로 가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신당 안 따라왔으면…”

중진들 盧대통령에 건의

:

밤늦게까지 포도주 만취 경호원 부족받으며 하산

했다고 한다. 긍정적인 답변은 아니었다.

정 고문은 “노 대통령에게 통합신당 얘기를 냈는데, 끝내 답을 하지 않았다. (노 대통령이)상당히 아쉬워하는 것 같았다”고 했다. 그는 “지금은 (여당이) 짚을 때고 이유식을 먹을 시기인데, 노 대통령은 자꾸 짚을 먹이려 하더라”고 했다. 노 대통령이 계속 유보적인 반응을 보이지, 신 고문이 “어떻게 할지 더 고민해 보자”고 하면서 이야기를 마친 것

으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당시 대통령 탈당 문제도 거론된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노 대통령은 끝까지 ‘탈당은 안 한다. 여당과 함께 간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당시 당·정(黨靑) 갈등 조짐을 보이던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 내정자 처리 문제도 거론됐다. 김 전 국회의장은 “임명을 강행하면 국민여론이 나빠지고 당·청관계 등에서 후유증이 심각할 것”이라고 했지만, 노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얘기 도중에 “내 진의가 국민들에게 너무 전달이 안 되고 있다. 고민스럽다”며, 언론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노 대통령은 포도주에 대취했고, 휘파람을 불며 노래도 불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 고문은 “몇 병인지도 모르게 포도주를 마셔 그냥 산을 내려올 수가 없었다”며 “노 대통령은 젊은 경호원 2명이 양 옆에서 팔을 부축해 산을 내려왔고, 나와 신 고문도 경호원 1명씩이 부축했다”고 했다.

노 대통령은 만찬 후 며칠 뒤 김병준 부총리 임명을 강행했고, ‘열린우리당 사수, 탈당 반대’라는 입장을 밝혔다. 원로들의 제안과 다르게 간 것이다. 여당 관계자는 “노 대통령과 여당 원로들의 인식 차이를 확인한 자리였다”며 “이후 여당에선 ‘노 대통령과는 함께 가기 힘든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고 했다. 배성규기자

이제 특목고의 트렌드는 국제고입니다

www.csia.hs.kr

왜 국제고인가?

국제인재 VS 어학인재

Q 교육 목표는 어떻게 다른가?

A 외교가 어학 영재 양성인 교육 목표라면, 국제고는 국제관계 및 국제지역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그 목표다.

Q 국제고와 외교 무엇을 배우나?

A 국제고는 국제 경제, 국제 정치, 국제 문화, 국제법 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중심의 82단위 이상의 전문 교과로 편성되며, 외교는 어학 중심으로 82단위 이상의 교육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국제고는 유학반의 AP 관련 수업이 훨씬 유리하다.

Q 외교와 국제고 어학 공부의 방향은?

A 외교는 어학 중심의 학교이므로 해당 외국어에 대한 집중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는 반면 국제고에서는 외국어는 국제화 시대의 기본적 소양으로 간주하고 전교과를 영어로 수업하는 것을 통해 자연스럽게 익힌다.

Q 국내대학 특별전형은?

A 2008학년도 대입전형기본계획에 따르면 국제고는 국제학부(연세대 UIIC, 고려대 국제학부, 대학의 외교학과 등으로 확대 예상) 등 국제계열로, 외교는 어문계열로 동일계 특별전형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되었으나 이제 대학이 특별전형 도입여부, 해당 특목고에 가산점을 주는 등 구체적인 전형 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되었다.

왜 청심인가?

청심국제중고등학교 국제인재 어떻게 키우나?

Q 청심이 말하는 국제지역 전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A 앞으로 10년 후, 국가간 협상 테이블에서 경제전문가로, UN 등의 국제기구에서 탁월한 어학실력과 영문으로 주목 받는 국제기구 전문가로,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등의 글로벌 기업의 인재로 다양한 국제적인 비즈니스 현장과 문화의 중심에서 청심의 인재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Q 유학반 편성은 어떻게 하는가?

A 유학반은 지원분야에 관계없이, 본인의 희망에 따라 1학년 때 편성한다. 현재 방과후 학교 시간에 SAT를 비롯하여 US History, English Literature, Economics, Chemistry, Biology, Calculus 등 다수의 AP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Q 영어 교육은 제대로 하나?

A 한마디로 상용화다. 학교 어디서나 영어가 사용된다. 청심은 영어 공개 수업 후 교사를 채용한다. 30% 이상의 원어민 교사와 네이티브 수준의 한국인 교사가 국어 국사를 제외한 전교과를 영어로 수업한다. 청심국제중고등학교의 영어교사는 총 10명(법정 교사수-2명)으로 12명 단위로 진행되는 정규수업 외에도 주당 4시간씩 방과후 별도의 영어수업이 무료로 진행된다.

Q 법인이 통용교 계열이라던가?

A 청심국제고의 법인은 통용교 관련 법인이다. 교사, 학생 선발 및 학교생활에서 특정종교를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국제문화의 이해 측면에서 1주일에 한시간 종교시간이 배정되어 있다. 세계 종교를 모르고 국제문화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종교시간에 학생들은 세계의 여러 종교를 통해 국제적 감각을 키운다.

Q 청심은 사립학교인데 재정은 단단한가?

A 설립 취지는 좋았으나 재정 문제로 흔들리는 사학이 있다. 청심 국제고는 학생 전원에게 과제연구비로 1인당 100만원(1억 2천만원 책정)을 책정하여 지원한다. 2006학년도 학교운영비의 80%를 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다.

Q 청심은 귀족학교인가?

A 2006학년도 수업료는 한 달 30만원, 한 달 기숙사비는 55만원(청소, 세탁비 포함) 총 85만원의 교육비가 든다. 다른 특목고와 비교하면 교육비 부담이 적다. 그러나 무상교육인 다른 중학교와 청심국제중의 학비가 단순 비교되면서 귀족학교 논란이 불거졌다. 100명이라는 소수정예제에다 1인 1학기를 개인 레슨식으로 교육하는 등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단에서 집중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Q 대입 높아진 논술 비중 어떻게 대비하나?

A 청심국제고의 국어과 교사진은 논술과 관련된 활발한 저술 활동과 연구로 유명한 전국 최고 수준의 교사진이다. 청심국제고는 1학년 때부터 언어 수능반과 논술반을 운영한다. 청심독서인중재를 통해 독서로써 논술의 기본을 다지고, 박사급 사회과 교사들을 중심으로 통합 논술에 대한 전문성을 기른다. 청심국제고는 일상적으로 모든 수업이 12~25명 단위의 소수 토론 및 발표 중심 수업이며 자연스럽게 토론이 이루어지는 학교문위기를 통해 어느 학교보다 토론하게 논술을 대비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입학설명회 (장사: 정철화 고교)

2006. 9. 26(화) 오후 2시 본교 강당

2006. 9. 27(수) 오후 2시 본교 강당

● 교록(학교에서 배스편이 제공됩니다)

송과구 장상민, 대치동 학여울역, 양천구민회관, 일산 마두역, 월미수지 마미도, 문당 서현역 6곳에서 출발합니다. 출발지에서도 출발 시간과 장소를 확인하시고, 학교방문(School Visit)을 통해 반드시 예약해주시고, 심심한 전형에 대한 마지막 정보를 드립니다.



뉴라이트 신노동연합 창립 뉴라이트 신노동연합 창립대회가 23일 서울 63빌딩에서 열렸다. 권용목 상임대표(맨 오른쪽) 등 지도부가 손을 맞잡고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최순호기자(블로그choish.chosun.com)